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찬양 (시편 139:1-24)

Praise be to the God who knows everything (Psalm 139:1-24)

하나님 지식은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지식을 바로 갖는 이가 바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전능하심을 계시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The knowledge of God is very important for the believer. Anyone who rightly understands the knowledge of God is a right believer. Psalm 139 reveals God's omniscience, omnipresence, and omnipotence.

1. 전지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철저히 아십니다. 모든 사건, 피조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하늘과 땅과 옥에 있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우리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도 없고, 그는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1. Praise be to God for His omniscience

Our knowledge is a partial and uncertain knowledge, while God knows every thing and every person completely. God concretely knows all events and creatures, past, present and future. He knows everything that is in the heavens, on the earth, and even in hell itself. We cannot avoid His gaze. He never forgets us. Regarding God's complete knowledge, the psalmist said, "You have searched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1절)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라고 했습니다.

me and you know me" (v. 1). And the apostle Paul said, "Oh, the depth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his judgements and his paths beyond tracing out" (Romans 11:33)! Likewise, if we confess our sins and rely on the God who is omniscient, our praise and thanks will burst forth, and our comfort and pleasure will overflow.

이 같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를 의지하면 감사와 찬양이 터질 것이고 위로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2. Praise be to God for His omnipresence

The man who has committed sin normally desires to escape from God's omnipresence. Whether we go up to the heavens, make our bed in the depths, or go to the east or to the west, the darkness can never hide us from God's omnipresence. The psalmist knows this fact, and is not worried but comforted.

2.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전지 앞에서 도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스올로 내려가도, 동이나 서로 가도, 흑암도 결코 우리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시인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3. Praise be to God for His omnipotence

If we do not know God's omnipotence, we cannot believe Him or know Him. If He is not omnipotent, there must be a power more powerful than God, which cannot be. David applied God's omnipotence to himself and confessed, "For you created my inmost being; you knit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v. 13).

3.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시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13절)라고 고백합니다.

The omnipotent God is never with the wicked (vv. 19-22). Rather, He is with the people who are continually on the path of God (vv. 23-24).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19-22절).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에 있는 이들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23-24절).

Conclusion

The faith that believes in God's omniscience, omnipresence, and omnipotence will make us humble. If we look within ourselves standing before God's complete knowledge, we will begin to realize how miserable we are and become humble. Hum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irtues of the Christian life.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심을 믿는 신앙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식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임을 알게 되므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성입니다.

A right knowledge of God comforts us and encourages us to live for Him. And this faith allows us to pray. The Christian's fundamental attitude must be to pray to the God who knows our needs, hears our prayer anywhere, and has the almighty power to answer our prayer. By lifting our concerns to the God who is omniscience, omnipresence, and omnipotenc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people of God who receive His gr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바른 하나님 지식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이 신앙은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어디서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자세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어 큰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고난 받으신 주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성금요일(4월2일) 금식 선포

내일부터 부활절(4월4일) 전까지 6일간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29일(월)부터 4월3일(토)까지 새벽기도회(오전 5시30분)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행적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성 금요일(4월2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을 선포하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주일에 드리는 금식헌금은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진다.

성 금요일 다락방 예배는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저녁 8시부터 101호에 모여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드린다. 이

날 환자들을 위한 기도회는 모이지 않는다.

모든 성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으며 깊이 묵상(표표참조)하고 근신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오전 5시에 특별 새벽예배(찬양: 시온찬양대를 드리고, 낮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린다. 그리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지휘: 류충기 집사, 오르간 강민정 집사)가 준비한 부활절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위임목사 동정

이종윤 목사는 현재 미국(애틀란타, 워싱턴DC 등지)에서 연합집회 인도, 강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집회 후에는 영국(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인사의 말씀과 보고를 할 예정이다. 귀국은 4월 20일(화)에 할 예정이다. 이종윤 목사의 건강과 영력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바란다.

도서실 신간 안내

『하나님 나라의 서막』

위의 책에는 <언약적 세계관을 위한 창세기적 토대>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이 책은 창세기를 문학적으로 집중 조망함으로써 창조에서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운동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며 제도적으로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지도 규명한다. 저자 메리데스 클라인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다. (개혁주의신학사 간행) 특히, 이 책은 이종윤 위임목사님께서 추천사를 써 주신 책이다.

금주의 성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8-39)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8:38-39 [NIV]

Vision2020 군선교 후원자 최종명단

김장성, 강나훈, 강승용, 강애자, 강요셉(강찬양), 강재훈, 강진환(양정실), 강택근(정유선), 강희자, 고석태(장효정), 고아라(고요한), 권소희, 권오철(박영애), 권혁달, 김관규(윤혜련), 김관홍, 김광민(박민숙), 김광태, 김권집, 김기욱, 김대호, 김명삼, 김명숙, 김미경, 김병호, 김복녀, 김상일, 김성준(김선영), 김세웅, 김숙자, 김승환(백기선), 김영제, 김유경, 김윤, 김은태, 김인혜, 김재근(안본선), 김정근(김수정), 김정희, 김중자, 김준목, 김준욱, 김태삼, 김행숙, 김현숙, 김형상(최금숙), 김혜경, 김경희, 김양숙, 김영빈(배병이), 김영주, 김영준, 고석규(한지중), 김용환, 김은애, 김은희, 김주현, 김진달, 노문환, 노송성(이영옥), 노영환, 노진아, 나미용, 나성민, 남현주, 민순구(이영희), 민정아, 민혜정, 박광수, 박기남(강영순), 박동희, 박명석, 박병욱(조혜영), 박은주, 박인규, 박재수, 박정선, 박정섭, 박정수(김경옥), 박정임, 박정자, 박종권(김희경), 박진희, 박찬성(심명숙), 박현미, 박화실(이은자), 박희석, 방계은, 백승갑(박길자), 백정숙, 백준, 변만중, 변명수, 변일수, 박경정(이인보), 방호철, 박하나, 배재승(임분도), 박우주, 서영세, 성선규, 소병국, 소윤경, 손명근, 손재겸, 손현순, 송인수, 송행희, 신규철, 신삼철, 신순자, 신용식, 심상희, 심화숙, 송재현(선순례), 양득춘(최혜인), 안미경, 안창취(정복금), 안홍희(전화진), 양춘경(이인숙), 양옥자, 이갑진, 오광환(이안순), 오민제(임경희), 오영자, 오유식, 오정수(이영희), 오종원(김연

화), 유관모, 원용규(박이선), 원용범, 원선자, 우승희, 유병욱, 유선희, 유을상(윤숙희), 육순자, 윤복순, 윤석원(현승희), 윤운, 이갑연, 이관규, 이광배, 이광열(염금숙), 이남복, 이남성(최영란), 이동권, 이명구(문옥일), 이미경, 이미경(4대중심)이민희, 이민희, 이병현(재경희), 이상호, 이선자, 이성우(윤정숙), 이신재(이강진), 이영기, 이준수, 이영옥(최금봉), 이우리, 이윤영, 이응선(박순봉), 이인숙, 이점숙, 이찬호, 임상현(서희숙), 이창수, 이현수, 이현주, 임광호, 임귀순, 임미경, 임병우(임혜림), 임송자, 임태관, 임흥수, 유근중, 유전오, 이부자, 이혜숙, 이경구, 이관모, 이기태(유봉현), 이남복, 이복규(한명순), 이훈, 이영조(이영자), 이삭선교회, 루디아전도회, 제1권사회, 12-9다락방, 장덕(임인자), 장인원, 장명순, 장애순, 장정화, 전수자, 전용순, 전용숙, 정동학(박복순), 정애선, 정연택, 정영정, 정혜란, 조경호(고선옥), 조장식(김영식), 조정옥, 주동재, 진교남, 진순근(이혜선), 진영숙, 전원순, 정희순, 조미환, 조봉환, 최임수(노인숙), 최광성(이정연), 최공천(이정희), 최규조, 최근보(김은희), 최무순, 최양진(강은숙), 최미아, 최영순, 최향봉, 최홍열(오충례), 최형열(김찬진), 황경준(전정순), 표현희, 홍순복, 하영수, 하인선(남태순), 하정자, 한정민(한정순), 허경화, 홍승자, 황경신, 황광숙, 황선옥, 홍성주, 황병석, 홍성호, 홍재식,

지난 3월 24일(수) 오후 7시 육사 교회당에서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성찬식이 우리교회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박노철 목사가 설교하였으며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집례하였다.



섬김의 하모니

윤숙희 권사
(제2권사회장)

1992년에 시작한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어느덧 37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돌아보면 꿈같은 시간입니다. 서울교회가 막 시작되어 우리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그 때 과감히 선포된 목회자세미나! 그 첫 학기 교회가 협소해 빌린 강남 YMCA가 밀려드는 목회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음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자들께 기쁨을 주시는 권사님, 이렇듯 귀한 섬김이들이 목회자세미나를 오늘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조반도 거르신 채 달려오시는 목회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만나 홀은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그래도 맛있게 드시는 목회자들의 모습은 섬기는 이들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사랑양념 듬뿍 담은 손맛들이 질서정연 어우러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모하여 기다려지는 섬김의 날 월요일! 섬김의 일들로 인하여 큰 감격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옥 같은 말 하나까지 역사하시는 서울교회 목회자 세미나! 아름다운 말씀의 동산 서울교회로 피곤하

요. 음식 한 가지 한 가지가 날씨가 차가울 땐 따뜻한 음식으로, 비가 올 땐 구수한 음식으로 그렇게



심도 잊은 채 달려오시는 전국의 목회자들, 이번 학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웨스트민스터홀의 자리가 차고 넘치어 보조 의자까지 놓고 있습니다.

오시는 목회자들을 가장 먼저 맞는 차량 섬김이, 집사님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환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미소천사 안 내 섬김이, 목회자들의 소중한 문서 기록을 남겨 주시는 접수 섬김이, 향긋한 사랑의 맛을 대접하는 차 섬김이, 이종윤 목사님 메시지를 소개하는 서적 섬김이들, 수년간 나눔의 집을 운영하며 참석하신 목회



섬김의 중심에 있는 제2권사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이 모든 질서와 조화의 하모니가 하나 되어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하늘에서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자녀들이 사랑하노라”는 잔잔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극히 작은 섬김에도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보잘것 없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이영철 집사 (11교구)

호산나! 호산나!
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어린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의분을 보이셨지만
저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였으며
가룟유다 처럼 주님을 팔았으며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 했던 것 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으며
그토록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 홀로 십자가 지시게 하고 도망친 것처럼
저 또한 자꾸 주님 품을 떠나려고 몸부림 쳤나이다.

은 몸이 채찍에 맞아 찢겨어지는 고통도
머리에는 가시관 씌어지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는 고통도
옷이 벗겨진 수치스러움도
침을 뱉어 저주하는 모멸감도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참고 승리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셔서 날 구원 해 주신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제 눈에 너무도 선합니다.
핏방울 방울마다 새겨진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날 사랑 하시는데
나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오리이까?
어찌 세상 것만 쫓던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리이까?
주님!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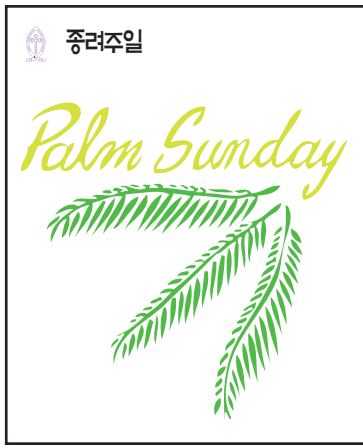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종려주일(Palm Sunday)은 부활절 전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의 주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마 21:1-11, 막 11:1-10, 눅 19:28-40, 요 12:12-19)을 기념하는 날로서, 날씨는 해마다 다르다.

2010년 교회력으로는 3월 28일이 종려주일이며, 이 날부터 7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성경에서 종려나무(palm)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며,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무리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하고 있다.



또한 이 주일이 종려주일과 관련되기 이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 지원자 주일(Dominica Competentium)'이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지원자들과 관련된 것이다. 세례 지원자들은 이 주일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조와 주님의 기도를 배웠다.

이날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다.

한 주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뜻 깊은 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편집부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출신의 성악가들로 구성된 루미나 페데스(Lumina Fedes)의 중창으로 드린다. 중창단원 모두 장신대 졸업후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성악과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찬양으로 빛과 복음을 전한다"는 뜻을 갖는 루미나 페데스중창단(리더: 이혁기 / 고문: 이명신 교수)의 오늘 찬양곡은 "시23편, 여호와와 나의 목자 되시며(Henry Smart)" 외 2곡을 워싱턴주립대 오르간 박사인 김은성 선생의 반주로 드린다.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우리교회는 지하3층에 나눔의 집을 개설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다. 나눔의 집은 성도들이 기증한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 목회자신학세미나 참석자들과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 아래 그 동안 기증받은 물건이 많이 소진되어 지금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도들 가정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의류 등을 교회에 기증하면 나눔의 집에서 한 점당 1,000 원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선한 사업에 사용된다. 성도들의 많은 기증을 기다린다.

천국시민양성 -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예수님의 방법

현대석 성도 (청년1부)

"서울교회 교회학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의 영혼을 향합니다."

매년 배우고 또 배우는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이지만 이번 교사교육은 특별했습니다. 2010년 서울교회 교회학교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7년간 고등부 교사로서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매년 매달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2%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학원이 우수한 대치동 아이들, 공부와 성적이 우수한 대치동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항상 부족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올해 강사로 섬겨주신 박노철목사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안정감 있게 그분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습니다. 교사된 자 역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교사라는 분명한 자아상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

또한 교사로서의 모습과 태도가 분명히 변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없었고, 아이들을 쉽게 판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들 하나하나의 영혼을 보고 그들의 내면까지 안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교사교육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 닮은 교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더욱 멋진 교사가 되기 위해 기도 하겠습니다.

사람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안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넘쳐나는 서울교회 교회학교가 1만 명 이상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등정

■ 최미아 권사(5교구)는 23회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다.

■ 주간식당 봉사: 에스더전도회(3.28) 한나전도회(4.4)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30분	
세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 되도록
3.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